

# 막 내린 여수 낭만버스킹 올해 23만명 즐겼다

관람객 지난해보다 35% ↑  
257개팀 750차례 공연  
특화된 프로그램 호평  
신도심 청춘버스킹도 인기

여수 도심을 공연장으로 만들었던 '2017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이 막을 내렸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7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이 지난 4월 종포해양공원 등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 뒤 10월 22일까지 750차례에 걸친 공연을 마무리했다.

여수 도심 무대에 오른 버스커들만 257개팀 549명에 달했고 이들 공연을 관람한 관람객들은 2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7만여명)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여수시는 파악했다.

여수시는 올해 버스킹의 경우 공연장소를 8곳에서 5곳으로 축소하는 대신 댄스, 무용, 어쿠스틱, 퍼포먼스 등 특화된 공연을 준비한 게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제 버스킹 도시로 도약을 위해 개최한 '2017 여수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에는 국내외의 16개 팀 56명의 공연을 보려는 관람객 6만여명이 몰리면서 여수 밤바다가 북적였다.

여수·문수·웅천·여천 신도심 일대에서



올해 여수 도시를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연장으로 탈바꿈시켰던 '낭만버스킹'이 막을 내렸다. 여수 도심에서 펼쳐진 거리공연 장면. <여수시 제공>

진행된 청춘버스킹 공연도 여수 곳곳으로 버스킹 문화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청춘버스킹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여문문화의거리 1·2, 웅천상가, 선소체육공원, 소호동동다리 등 5곳에서 펼쳐졌다. 235개팀 897명의 버스커들

은 어쿠스틱, 클래식, 댄스, 마술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공연을 총 125회 선보였고 지난해(1만4000여명)보다 150% 늘어난 3만5000여 명의 시민 관람객이 청춘 버스킹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시는 수시 오디션을 거쳐 버스커들을 현장에 투입시키는 한편, 매주 관람객

들의 의견 등을 설문조사한 뒤 버스커들에게 전달, 관람객들과 간격을 좁히는 데 공을 들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객과 시민 행복을 위한 수준 높은 버스킹 공연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시 내년 MICE산업 활성화 박차 행사 900건·방문객 40만명 유치 목표

여수시가 내년 마이스(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 MICE행사 900건, 방문객 40만명을 유치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여수시는 올 10월 말 기준으로 MICE 유치 실적(828건(33만3891명))으로 남은 기간 계획된 행사 등을 감안하면 올해 말 전체 실적은 지난해(873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남해안권 MICE 중심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 부스가 설치되는 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예산도 지난해보다 5000만원 늘려 대규모 MICE 행사를 유치, 3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목표를 세웠다. 숙박 인원 80명 이상, 회의일수 2일 이상 등 행사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행사에 최대 2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기로 했다.

또 내년 인천 송도에서 예정된 '2018 한국마이스연례총회 및 마켓플레이스'와 '코리아 MICE EXPO'에 참여, 지역 MICE 여건과 인센티브 방안 등을 홍보하는 한편,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해외 마이스 전시·박람회에서도 여수 MICE 유치 활동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역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고 민·관 합동 MICE 초청 캠퍼어도 분기별로 진행하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여수시는 특히 차별화된 MICE 발굴,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 '지속가능 섬관광 국제컨퍼런스'를 열어 국내외의 관련기관·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관광중심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섬자원화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만의 차별화된 MICE 인프라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남해안권 MICE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성 일자리 박람회 내일 흥국체육관에서

여수에서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 여수시는 오는 8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2017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여성 일자리 희망이다'를 슬로건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40여개 업체 참여한다.

박람회장에는 인재채용관, 여성창업관, 직업체험관, 취업컨설팅관, 원스톱취업준비관 등 5개관으로 나뉘어 70여개 부스가 운영되며 1:1 개별면접, 창업정보 제공, 유망직종 상담, 적성검사,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GS칼텍스재단 등 30개 업체가 박람회 당일 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기서 찰칵~ 천사벽화마을 포토존



여수시가 중앙동 고소천사벽화마을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관광시설 확충에 나섰다. 여수 구항 일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데크 전망대를 조성했고 낭만버스커 포토존(사진)도 꾸몄다. 진남관에서 벽화마을로 건너가는 좌수영 다리에는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그린 12폭 타일벽

화로 장식, 볼거리를 늘렸다. 고소천사벽화마을은 총 9개 구간 1155m로 바다이야기, 여수의 풍경 등을 주제로 꾸며져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LG화학 소외계층 지원 '사랑 품앗이' 눈길



### 요양원 등 2000만원 후원

LG화학 여수공장이 수년동안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인 '사랑 품앗이(사진)'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최근 돌산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해 신흥요양원, 밀알사랑노인요양원, 실로암요양원 등에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이들 복지시설에는 '사랑 품앗이' 형태로 에어컨과 세탁기, 컴퓨터, 청소기 등이 전달됐다.

'사랑품앗이'는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을 요청받아 후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2011년부터 '사랑 품앗이' 사업을 펼쳐 25개 시설에 1억2000만원을 후원했다.

여수공장 봉사단 관계자는 "사랑품앗이 사업을 통해 시설 보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 여수공장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안검하수 회복수술 지원'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Aroma Life**  
www.aroma-life.co.kr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별단면복합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대표전화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리**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